

우리 해역 수산물 안전관리 현황

- 브리퍼 : 해양수산부 박성훈 차관 -

< 1. 인사말씀 >

□ 해양수산부 차관입니다.

< 2. 우리 해역·수산물 안전관리 현황 >

□ 11월 2일 기준, 우리 수산물에 대한 안전관리 상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.

○ 어제까지 추가된 생산단계*와 유통단계 수산물 방사능 검사 결과는 25건과 65건으로 모두 적합입니다.

* (검사 건수 상위 5개 품목) 갈치 7건, 바지락 1건, 갑오징어 1건, 참조기 1건, 전어 1건 등

□ ‘국민신청 방사능 검사 게시판’ 운영 결과입니다.

○ 시료가 확보된 제주도 소재 양식장 1건을 포함해 국민 신청 방사능 검사 게시판 운영을 시작한 지난 4월 24일 이후 총 254건을 선정하였고, 245건을 완료하였으며, 모두 적합이었습니다.

□ 수입 수산물 방사능 검사 현황입니다.

- 10월 31일에 실시한 일본산 수입 수산물 방사능 검사는 41건이고, 방사능이 검출된 수산물은 없었습니다.

□ 선박평형수 안전관리 현황입니다.

- 지난 브리핑 이후, 치바현 치바항에서 입항한 1척에 대한 조사가 있었고 방사능이 검출되지 않았으며, 금년 1월부터 현재까지 치바현 등에서 입항한 선박 101척에 대한 선박 평형수 방사능 조사 결과, 모두 적합이었습니다.

□ 해수욕장 긴급조사 현황입니다.

- 11월 2일 기준, 추가로 조사가 완료된 울산 일산·진하 2개 해수욕장 모두 안전한 수준으로 확인되었습니다.

* 10월 3~4주차(10.16~10.27) 분석 의뢰한 전국 20개소 중 16개소 분석 완료

□ 해양방사능 긴급조사 현황입니다.

- 지난 브리핑 이후 남서해역 2개 지점, 남동해역 4개 지점, 원근해 3개 지점의 시료분석 결과가 추가로 도출되었습니다.

- 세슘 134는 리터당 0.071 베크렐 미만에서 0.080 베크렐 미만이고, 세슘 137은 리터당 0.063 베크렐 미만에서 0.081 베크렐 미만이며, 삼중수소는 리터당 6.7 베크렐 미만이었습니다.

* (^{134}Cs) <0.071~<0.080 Bq/L, (^{137}Cs) <0.063~<0.081 Bq/L, (^3H) <6.7 Bq/L

- 이는 WHO 먹는 물 기준 대비 훨씬 낮은 수준으로, 방류 이후에도 우리 바다는 ‘안전’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.

< 3. 정부비축 천일염 방출 등 수산물 가격안정 대책 >

- 다음으로, 오늘 경제부총리 주재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확정된 김장철 먹거리 가격안정 방안의 수산분야 대책을 말씀드리겠습니다.
- 먼저, 정부 비축물량 방출 관련입니다.
 - 김장 재료 중 하나인 천일염은 11월 1일(수) 어제부터 국산과 수입산 정부비축물량 최대 1만 톤을 방출합니다. 소비자께서는 전통시장, 마트 등에서 정부비축 천일염을 10kg 기준 시중가격의 1/3 수준인 1만원에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.
 - 작년보다 가격이 높은 명태와 오징어도 정부 비축물량 3천 5백 톤을 지난 10월 23일(월)부터 소비자가격 대비 30% 할인하여 공급하고 있습니다.
- 다음으로, 수산물 할인행사를 말씀드리겠습니다.
 - 오늘부터 11월 26일(일)까지 38개 온·오프라인 업체와 함께 수산물을 최대 60%까지 할인하는 ‘코리아수산 페스타’가 개최됩니다.

- 이번 할인행사는 김장 재료인 천일염, 새우젓, 액젓을 비롯하여 양식 수산물 등 모든 수산물을 대상으로 할인을 지원할 계획입니다.
- 이어서, 고등어 할당관세 시행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.
- 11월 6일(월)부터 수입 고등어 1만톤에 대하여 할당 관세를 시행합니다. 할당관세를 적용받는 수입 물량은 무관세 혜택을 받게되며, 이를 통해 소비자가 선호하는 중대형어(300~600g) 공급 부족이 해소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.
- 오늘 말씀드린 수산물 가격안정 대책의 자세한 내용은 오늘 오전에 별도로 배포된 해양수산부 보도자료 등을 참고해주시고,
- 해양수산부는 앞으로도 물가와 민생 안정을 최우선으로, 부처의 모든 역량을 동원하여 국민들께서 만족하실 때까지 다각적인 물가, 민생 안정 대책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.

< 4. 11월 2~3주 대면 브리핑 변경사항 안내 >

- 마지막으로, 11월 2~3주 대면 브리핑 일정 변경사항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.
- 지난달 서면 브리핑 도입 이후, 매주 월요일에는 극조실 극무1차장이, 목요일에는 해수부 차관이 브리핑에 참석해 왔습니다만,

- 다음 주부터 2주간은 국회 일정 등으로 대면 브리핑 일정을 부득이하게 변경하게 되었습니다.
- 먼저, 다음 주에는 월요일(11.6)과 금요일(11.10)에 대면 브리핑을 개최하며, 월요일에 해수부 차관이, 금요일에 국무1차장이 참석할 예정입니다.
- 11월 3주에는 개최일은 월요일(11.13)과 목요일(11.16)로 기존과 같지만, 월요일에 해수부 차관, 목요일에 국무 1차장으로 참석자 변경이 있습니다.
- 기자분들께서 이 점 참고하시어 취재 일정에 착오가 없으시기를 바랍니다. 이상입니다.

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데이터

- 브리퍼 : 원자력안전위원회 신재식 방사선방재국장 -

< 1. 인사말씀 >

- 원자력안전위원회 방사선방재국장입니다.

< 2. 오염수 3차 방류 개시 >

- 도쿄전력은 어제(11.1) 17시에 상류수조에서 채취한 시료의 분석 결과를 발표했습니다.
- 상류수조에 오염수 약 1세제곱미터(m^3)와 해수 약 1,200 세제곱미터(m^3)를 넣어 희석한 시료를 채취해 분석한 삼중수소 농도는 리터(l) 당 55~77베크렐(Bq)로,
- 희석비율을 고려해 계산한 희석 후 삼중수소 농도의 범위(49~194Bq/L)에 포함되며, 배출기준인 1,500베크렐(Bq) 미만이라는 내용이었습니다.
- 이에, 도쿄전력은 조금 전인 10시 30분부터 3차 방류를 시작했으며,
- 우리 검토팀도 방류 데이터 모니터링을 진행 중입니다.
- 거듭 말씀드리지만, 정부는 국민 여러분의 건강과 안전에 영향이 없도록 확인과 점검에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.

< 3. 전문가 현지 파견 일정 >

- 정부는 방금 말씀드린 3차 방류에 대한 확인·점검을 위해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(KINS) 소속 전문가를 후쿠시마 현지로 파견했습니다.
- IAEA 현장사무소 방문 및 화상회의, 원전시설 방문 등을 통해 3차 방류가 도쿄전력의 계획대로 이뤄지는지 확인할 예정입니다.
- 다만, 브리핑에서 여러 차례 설명해 드렸듯이, 구체적인 일정 공개는 전문가 활동에 제약이 될 수 있어, 말씀드리기 어려운 점을 이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.

< 4. 후쿠시마 원전 인근 해역 삼중수소 농도 분석 결과 >

- 도쿄전력 측이 어제(11.1) 공개한 후쿠시마 원전 인근 해역의 삼중수소 농도 분석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.
- 도쿄전력은 10월 31일, 기상 악화로 인해 원전으로부터 3km 이내 해역 10개 정점 중 2개 정점에서만 시료를 채취해 분석했으며,
 - 2개 시료의 분석 결과는 이상치 판단 기준인 리터(ℓ)당 700베크렐(Bq) 미만*으로 기록되었습니다.

* 3km 이내 2개 정점(T-1, T-2) 삼중수소 농도 : <7.1(검출하한치 미만)